

남포잎벌의 생태적 특성과 약제방제에 관한 연구

김철수, 박지두, 박영석, 신상철, 이상길

임업연구원 산림생물과

남포잎벌(*Caliro carinata* Zombori)은 1996년부터 경북 상주시 신갈나무 피해임지에서 대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본 해충의 생태적 특성 및 이의 방제에 대하여 일부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포잎벌의 일반적인 생태적 특성을 조사하고 방제를 위한 약제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해충의 방제 적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6년 6월상순부터 7월상순까지 야외조사지 지면에 10곳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우화상을 설치하여 성충 우화시기를 조사한 결과 우화초일은 6월8일, 우화최성기는 6월 20일이었으며 7월 10일경에 종료되었다. 남포잎벌 성충을 기주식물에 접종하여 산란습성을 조사한 결과 암컷 성충은 잎 표면에 산란관을 꽂고 잎 뒷면에 1열로 산란하는 습성을 보였으며 평균 11개의 알을 산란하였다. 유충의 6령까지 발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육기간은 20℃에서는 약 19일, 25℃에서는 약 17일을 보였으며, 영기별로는 2-4일의 발육기간을 보였다. 참나무류 8수종 신갈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 속소리나무, 굴참나무에 대하여 3-4령 유충의 습식량에 따른 기주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신갈나무와 떡갈나무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굴참나무는 전혀 섭식하지 않았다. 또한 유충기에 테부페노자이드 액상수화제, 플루페녹수론 분산성액제, 에토펜프록스 유제, 페니트로치온 유제 등을 피해엽에 살포하고 처리 후 3일 후의 살충율을 조사한 결과 공시 약종 공히 95%이상의 높은 살충율로 약제에 대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본 해충의 약제 방제시에는 테부페노자이드 액상수화제 또는 플루페녹수론 분산성액제와 같이 산림생태계에 영향이 적은 곤충 성장조절제의 사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